

People & Life

김일태 영암군수 군민장학회에 1000만원



김일태 영암군수는 12일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냈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영암 호텔 현대에서 차남 결혼식에 축하해준 군민에게 감사의 뜻으로 장학금을 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에도 자선헌출금 기금으로 1000만원을, 같은 해 9월 농협중앙회로부터 '2010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고 받은 시상금 500만원을 낸 바 있다. /중부취재본부=이상우·문병선기자 lsh@

전남대 오경진 교수 '해외 우수논문상'



전남대병원 오경진 비뇨기과 교수가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 28차 대한남성과학회 및 제 11차 대한여성성건강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제성의학회 공식학술지(Journal of Sexual Medicine)에 게재된 '폐경 여성에서 인삼이 성적 흥분에 미치는 영향: 위약-대조군, 이중-맹검 교차설계 임상 시험' 주제 논문으로 해외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손재홍 광주시의원 장애인협 감사패



광주시의원 손재홍(민주·동구 2) 의원이 광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협의회는 11일 "손 의원이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 복지 발전에 애써왔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재을 북구의장 지방의회발전 공로패



광주 북구의회는 12일 고재을 의장이 지방의회발전연구원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아 수여된 공로패는 전국 기초의원중 현역의원 기준 5년 이상 기초의원에게만 전달됐다. 광주 5개 기초의회 중 5년 이상 현역의원은 고 의장이 유일하다.

인사

- ◆광주 서구청
 - ◇6급 승진 ▲세무 2과 김성규 ▲정보홍보실 주경희 ▲보건소 정민호 ▲보건소 박해정 ▲건설재난관리과 유준호
 - ◇7급 전보 ▲문화체육과 나선운 ▲도시개발과 한경희

“로열티 받는 국산장미 기대하세요”

16가지 장미신품종 개발 전남농기원 기광연 연구사

“장미육종은 패션과 마찬가지로 3~4년 후의 소비자 기호를 예측하고 앞서나가야 합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기광연(47) 연구사는 장미육종에 뛰어든 지 4년 만인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토퍼라·한마음·단미·이노센스·라이브 핑크 등 신품종 장미 16종을 만들어낸 '미다스(Midas) 손'이다. 전국에서 새로 개발된 150여 품종 가운데 10% 가량을 만들어냈다. 이 가운데 9개 품종은 민간 종묘업체에 품종보호권 처분했고, 나머지 5~6개 품종도 올해 처분해 농가에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기 연구사는 지난 6~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내육성 장미 신품종 평가회에 '하트 윈' 등 7개 품종을 출품, 전문 가들과 화훼농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새로운 장미를 육성하려면 유전자원 수집 → 교배 모본(母本) 선별 → 5~6년간의 신품종 개발 → 농가 실증시험 → 품종등록 → 일반농가 보급 등 과정을 밟게 된다. 장미품종별 꽃색과 향기, 가지, 꽃잎 수, 중량, 개화 소요일수 등 '성질'(고유특성)이 어우러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단점은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기 연구사는 “장미농가들은 한번 사재 하면 3~4년간 수확해야 해 품종을 잘못 선택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신품종을 꺼려하고 불안해한다. 신품종을 개발하면서 경쟁력이 있을지, 농가에 피하는 안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 연구사는 장미 신품종 개발시 농가와 호흡을 강조했다. 지난해 개발한 '하트 윈'의 경우 '한마음' 품종의 농가 실증시험 단계에서 발견된 변이계통을 이용했다. 국내 육성품종이 늘며 국내 장미농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산장미 보급률 역시 지난 2005년 1%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4.4%, 2009년 13%, 2010년 18%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외국 장미품종을 도입하며 내는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외국장미 품종 1주당 2500~3000원(로열티는 50% 가량)이던 것이 1500~2000원으로 낮춰진 것. 기 연구사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품종당 2~3ha 정도 일정규모의 재배면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레아란 화훼공판장에 사제될 선보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때에 특정품종을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물량이 뒤따라야 가격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장성 지역 대규모 장미재배 농가에서 '하트 윈'을 1만주 심을 계획이어서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 연구사는 “국산 장미품종을 역으로 외국에 수출해 로열티를 받는 사례를 만들



을 1만주 심을 계획이어서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 연구사는 “국산 장미품종을 역으로 외국에 수출해 로열티를 받는 사례를 만들

광주 수돗물 주부감시단 떴다

상수도본부 '수도꼭지 수질 검사단' 발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2일 덕담정수장에서 '수도꼭지 주부 수질 검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공모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부 60명이 참여하는 수질 검사단은 올해 1만 가구를 방문해 휴대용수질분석기로 모두 5개 항목(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철, 구리)을 검사 한 뒤 검사결과에 따라 적합시키거나

검사결과표를 나눠준다. 주부수질감시단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많은 시민이 믿고 바로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결성됐으며,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11억원의 투입, 52만가구의 10%인 5만2000 가정을 방문해 수질검사와 수돗물을 홍보할 계획이다.



강운태 광주시장 “전국 최초로 광주 수돗물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검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부 수질 검사단원 모두 창조도시

美 육상스타 칼루이스 주 상원의원 선거 출마

미국 단거리 육상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칼 루이스(50)가 정치에 입문한다. AP통신 미국 언론은 루이스가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뉴저지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를 선언했다고 12일 일제히 보도했다. 루이스는 기자회견에서 “내 이력을 보시면 아시듯, 난 항상 이기려고 달려왔다”며 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농산업 사회적 기업 현판식



대농산업(대표 김성규)은 12일 광주 서구 서창동 회사 정문에서 나눔수 광주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교도소 출소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현판식을 가졌다.

동구 천변·주택가 등 봄맞이 대청소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12일 오후 공무원, 시민청소봉사단 등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소를 실시, 천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동구청 제공>

“재난현장 헌신적 구조 감동”

광산소방서 박종석 소방교 'KBS 119상'

광주광산소방서 박종석(35·사진) 소방교가 'KBS 119상' 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12일 "광산소방서 119구조대에 근무하는 박종석 소방교가 화재 등 각종 재난 재해현장에서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해온 공로로 제16회 KBS 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했고, 119구조대 봉사 동아리(희망의 불빛)에 참여해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매년 김장 담그기, 장애인 동반 나눔 등 사랑나눔을 실천해 왔다. 박 소방교는 “앞으로도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구조기술연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후 2시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수상한 소방공무원 총 20명에게는 상금과 1계급 특진, 부부 해외 격려여행 특전이 주어진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카라, 日 오리콘 주간 싱글차트 1위



결그룹 카라가 일본에서 발표한 세번째 싱글 '제트코스터 러브(Jet Coaster Love)'가 12일(18일자) 오리콘 주간 싱글차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일 발매된 이 싱글은 발매 첫주 카라가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 중 최고인 12만3000장이 팔리며 정상에 올랐다. 이번 1위로는 카라는 오리콘이 1968년 1월 싱글 음반 순위

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 4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외 여성 그룹이 싱글 발매 첫 주 정상에 차지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8월 일본 활동을 시작한 카라는 지난해 싱글 및 앨범, DVD 등을 합산한 총 매출액이 13억 엔(178억원)을 기록, 오리콘이 집계한 연간 랭킹의 '신인 음반 매출' 부문 1위에 올랐다. /연필뉴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향족 ▲신명수(전남도청 행복마을과장)·임영일씨 차남 희정군 김형래·신진숙씨 장녀 현선양=16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상록웨딩홀 3층(무궁화홀) ▲기동도(합학회사 협심상사 대표)씨 차남 필상군 김영인(남일대 대표)씨 장녀 미란양=16일(토) 오후 1시 30분 메리야트2층(건벤션홀) ▲구상호씨 차남 용희(뉴시스광주전남본부기자)군 윤남혜씨 사녀란희(광주북구청)양=16일(토) 오전 10시 10분 상무리즈컨벤션웨딩홀. ▲유동수(전 신안부군수·전남개발공사 개발부장)·김광자씨 차남 육군 김태연(KT남광주지사 SOHO 건설팀장)·박복순씨 장녀 하연양=16일(토) 낮 12시 10분 광주 힐리데 1366. 휴대전화 사용자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모집** ▲2011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생=청년일자리해결을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과 사회가 환영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참가대상은 대학교 4학년(전문대2학년) 졸업예정자. 6일~15일까지(월 2회) 기업실무·구직지원연계·예비신입사원연수 등 인재육성아카데미사무국, 062-224-7733. ▲무료사신스토리텔링교실=20일~7월20일(수요일 오후 1시30분~4시30분) 주회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 이야기통통 062-381-5252. ▲김양식씨·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규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관광 백운과파소 부근. 010-8072-2589. ▲광주FC 축구회원=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장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부, 식품유류,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부음** ▲이귀림씨 별세 김순호·희열·삼열·순갑·옥자·상순·상임·종례씨 모친상=발인 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곽소재씨 별세 배인성(수출입은행 부장)·인수(개인사업)씨 모친상=발인 13일(수) 송정장례식장 3호실. 062-941-7103. ▲장남수씨 별세 근대·근주씨 부친상=발인 13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북진보씨 별세 준·혜련씨 부친 상=발인 13일(수)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故人의冥福을 빕니다**